

북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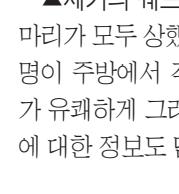


새책



▲나는 고백한다-정도전 암살 미스터리=비운의 혁명가 정도전의 파란만장한 삶이 소설로 펼쳐졌다. 저자 이재운은 당시 시대상황과 인물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풀었으며 정도전의 죽음에 얹힌 미스터리도 충분한 개연성을 살려 재구성했다.

<예상·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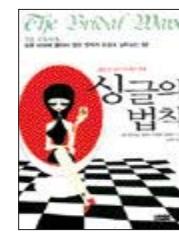
▲세기의 쉐프 세기의 레스토랑=3천200명이 먹을 바다까지 1천마리가 모두 상했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에서 인정받는 스타 쉐프 40명이 주방에서 겪었던 아찔한 실수들과 위기를 극복했던 에피소드가 유쾌하게 그려졌다. 꼭 한번은 들려봐야 할 세계의 명물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도 담겨있다.

<클라이닉스·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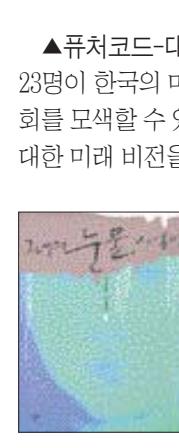
▲바람과 그림자의 책=해양생물학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마이를 그루버가 세이스피어의 삶을 재조명한 팬션 스릴러 소설. 그를 둘러싼 다양한 음모론을 바탕으로 미발표 희곡을 찾기 위해 등장인물들이 암투를 벌이는 과정이 긴장 넘치게 그려졌다.

<노블마인·1만3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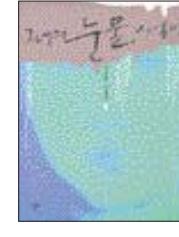
▲싱글의 법칙=단순한 싱글 예찬론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싱글 여성의 '결혼 광풍'에 훨씬 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결혼을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명한 결혼을 위한 싱글 가이드. 결혼 공습에서 싱글 여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확고하고 담백하게 알려 준다.

<책생각·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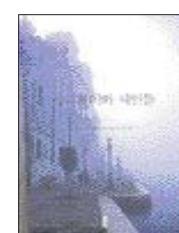
▲퓨처코드-대한민국 미래 트렌드=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23명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 풀어놓은 아이디어. 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한국경제신문·1만3천원>



▲그녀의 눈물 사용법=작가 전운영의 세번째 소설집. 세계에 혼재된 상처를 치유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눈물을 다양한 의미를 보여준다. 등장인물들이 눈물을 배설함으로써 카타르시스, 또는 치유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작가의 애정어린 시선이 느껴진다.

<장비·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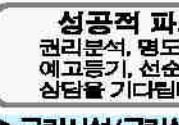
▲2008 이상문화작품집=대상 수상작인 권여선의 단편 '사랑을 믿다'와 그가 맵은 대표작 '내 정원의 불은 열매'가 실렸다. 우수상 수상작 정영문의 '독신의 어떤 오후', 김종광의 '서열 정하기 국민투표·율려, 낙선공화국 1', 박민규의 '낮잠', 박형서의 '정류장' 등도 함께 뮤었다.

<문학사상사·1만1천원>



▲베네치아와 시인들-사랑의 이야기=코테, 베이란, 스탄달, 마르셀 프루스트, 헤밍웨이 등 서양문학사의 거장들이 베네치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를 엮었다. 29명의 작가들이 남긴 작품과 삶을 추적하고 베네치아 곳곳에 스민 문학의 향기를 찾아본다.

<열림원·1만2천원>



▲말년의 암식에 관하여=하버드 대학교 비교문학 객원 교수이자 문학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에드워드 사이드의 유고작 시리즈 첫권. 일부 예술가들의 독특한 '말년 암식'에 주목했다.

<마티출판사·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세계적 석학이 된 신동들 25명의 삶



토마스 휘스, 니체 등 일찍부터 학문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 신동들을 소개한 책이 나왔다.

독일 카이저스러우테른 대학교 인간유전학 교수인 하인리히 창을 등이 쓴 '신동'은 세계적 석학이 된 25명 천재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본 흥미로운 책이다.

책은 수학, 과학, 의학과 심리학, 철학과 어문학으로 나눠 각 분야의 신동을 소개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를 흡모한 첫 여성 수학박사 소냐 코발레프스키, 방사선으로 노벨상을 받은 마리 뒤리와 이렌 뒤리 모녀, 발달 심리학의 아버지 창 플 피아제 등을 만날 수 있다.

<프로네시스·1만3천원>

/김미온기자 mekim@

매일 아침 휴대전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화장실 비데를 사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일상 속에는 무수한 과학의 비밀들이 숨어있다.

전자는 음성을 전류로 바꿔 전달해 주는 원리이며, 비데는 좁은 곳을 통과하는 물줄기가 세지는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했다. 로프가 끊어졌을 때 전원이 차단되는 등 20여 가지의 안전장치가 달린 엘리베이터도 과학의 덕을 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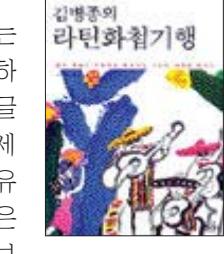
도스토옙스키를 흡모한 첫 여성 수학박사 소냐 코발레프스키, 방사선으로 노벨상을 받은 마리 뒤리와 이렌 뒤리 모녀, 발달 심리학의 아버지 창 플 피아제 등을 만날 수 있다.

<프로네시스·1만3천원>

/김미온기자 mekim@

김병종의 라틴화첩기행

김병종 글·그림



세계 각국의 여행기를 읽는 재미 중 하나는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사진'에 있다. 앵글에 담긴 이국적인 풍광들과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는 문화유적, 생생한 현지인들의 표정은 장황하게 써놓은 여행기(記)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지만 화가 김병종(서울대 미대 교수)의 여행기라면 그이가 달라진다. 그의 여행기에서 사진은 조역에 불과하다. 대신 자신만의 시선으로 해석해낸 그림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거기다 대학시절 두 차례나 신춘문예에 당선될 정도의 '글밭'을 자랑하는 그의 글솜씨와 다양한 인문지식이 더해지고, 무엇보다 예술가들을 애정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의 '진심'이 물어 있는 글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이미 지난 1999년 이난영·임방을 등 한국 예인(藝人)들의 자취를 따라 여행한 기록을 끝은 '김병종의 화첩기행-예의 길을 가다'를 비롯, 4권의 화첩기행을 통하여 그 진가를 보여줬다.

최근 출간된 '김병종의 라틴화첩기행'은 저자가 그림을 주제로 한 신작이다.



바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본다.

술집과 맹고를 주는 무도회장과 그 사이 서점이 춤을 하면서 박혀 있는 오래된 도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어떤가.

저자는 '보르헤스'의 시를 통해서는 환상과 현실 사이에 가로 놓인 교차로쯤으로, 왕가위의 화면 속에서는 몽환적인 그리움의 장소로, 피아졸라의 맹고선을 속에서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추는 자들의 도시로 연상되는 곳'인 그곳에서, '실수로 스냅이 얹기면 그에 바로 맹고이고, 실수로 넘어지면 그에 바로 삶이'라고 이야기 하던 '여인의 향기'의 주인공 알파치노를 떠올린다.

무엇보다 '글밭'과 함께 화려한 색감이 넘실대고 해학 넘치는 80여편의 그림은 이번 여행기의 하이라이트다.

책을 읽고 나면 여행기에 등장하는 로망 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와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을 런던의 음반과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와 영화 '모더사이언'을 다룬다.

제작자는 '가난도 남루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되받아칠 수 있는 깊은 청목빛 바다와 태양빛 때문이 아닐까'라고 윤조리며 흥겨운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을 이야기 한다.

제작자는 또 '불가능한 꿈을 꾸자'고 외쳤던 사람, 제작자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난한 유도피아 쿠바'에서 '늙지 않는 연인, 임기 없는 대통령'으로 키운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과학에 둘러싸인 하루 김형자 지음



매일 아침 휴대전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화장실 비데를 사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일상 속에는 무수한 과학의 비밀들이 숨어있다.

전자는 음성을 전류로 바꿔 전달해 주는 원리이며, 비데는 좁은 곳을 통과하는 물줄기가 세지는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했다.

이들 전자제품들은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고통하고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

'24시간' 일상생활 곳곳에 과학이 있다

청소년 과학잡지 'Newton'의 편집장이었던 김형자씨의 '과학에 둘러싸인 하루'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각종 과학의 힘을 설명하고 있다.

책은 소설의 형식을 빌었다. 고등학생인 '한국'이 잠에서 깨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대전화, 청소기, 세탁기, 에어컨, 비데 등 24개의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게 된다.

이들 전자제품들은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고통하고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

이들 전자제품들은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고통하고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

자동판매기와 자기장의 원리, 금속탐지기와 패러

데이의 전자기 유도현상, 진공청소기와 공기의 압력 차의 원리, 엘리베이터와 도르래의 원리, 정수기와 삼부업의 원리 등이 그것이다.

최초의 자동판매기는 기원전 215년경 그리스 과학자 헤론에 의해 발명됐고, 당시에는 신전에서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성수(聖水)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이 자동판매기에서 원하는 물건을 뽑고, 정확한 잔돈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과학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한다.

/서림하우스·1만3천원>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02) 223-5140, 5210 번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면, 대동 소방서간판면)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회

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

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

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

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

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2) 458-5205
(첨단지구 부영아 LC빌딩 사거리)

★ 급매 매★

• 첨단 민근 비아동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대세대주택, 투기장과 복지실버시설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